

된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골팽창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해부학적이거나 기능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즉 안구주위의 골팽창으로 인한 안구돌출, 상악골의 팽창으로 인한 비폐쇄, 드문 경우이나 악성종양으로의 전이 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섬유성 골이형성증, 범발성 섬유성 골염, Paget병 또는 골화석증등으로 인해 안면을 구성하는 골조직의 현저한 골증식으로 사자 얼굴과 같은 추형을 나타내어 골성 사자면증(Leontiasis Ossea)을 가져오는 경우는 하나의 증상명으로 나타낼수 있다.

본 한양대학병원 성형외과학 교실에서는 해부학적, 기능적으로 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섬유성 골이형성증을 경험하였다. 즉, McCune-Albright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14세의 여아에서는 우측 관골, 상악골 및 비골에 급격한 골성장을 보이는 섬유성 골이형성증으로 비폐쇄 및 심한 추형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골성 사자면증(Leontiasis Ossea)의 소견을 보였고, 동시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였다. 또한 안면골 섬유성 골이형성증을 보이는 30세의 여자 환자에서는 좌측 관골, 상악골, 비골 및 안저부 이형성골의 급격한 성장으로 거의 실명을 야기시킬 정도의 안구돌출증과 비폐쇄, 안면추형등을 동반하고 있었다. 기타 여러명의 섬유성 골이형성증을 보이는 환자들에 있어서 수술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그 치험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 24 —

두개골 조기 융합증을 동반한 희귀 선천성 기형 치험례

연세대학교 성형외과학교실

유대현 · 박병운

두개골 조기 융합증은 두개 및 안면부의 변형 뿐 아니라 뇌실질의 성장을 억제하여 지능의 저하, 뇌신경 마비, 시력 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흔히 다른 선천성 기형을 동반한다.

1931년 Saethre와 1932 Chortzen이 보고한 바 있는 Saethre-Chortzen syndrome은 두개골 조기 융합증과 ptosis, brachydactyly, partial cutaneous syndactyly 등의 다양한 사지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그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여 빈도에 비하여 극히 적은 수 만이 보고되어 왔다.

또한 frontonasal dysplasia(orbital hypertelorism, bifid nose etc)와 더불어 craniosynostosis 및 다양한 사지기형을 동반하는 craniofrontonasal dysplasia는 1979년 Cohen이 명명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40여 정도만이 보고 되었을 뿐이다. 본 교실에서는 craniosynostosis와 더불어 다양한 사지의 기형을 동반하는 saethrechortzen syndrome 1례 및 craniofrontonasal syndrome 1례에 있어서 두개 및 안면 성형 수술 후 원격 추적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 25 —

안면골 변형을 동반한 림프관종의 치험례

한양대학병원 성형외과

차상면 · 최희운

안면부의 과오종(hamartoma)은 태생학적 발달에서 기인하며 주로 출생시 또는 생후 수년내에 발생한다. 과오종이란 단어는 그리스어인 hematia 즉, 결손 또는 실수란 뜻에서 유래되는데 이는 태생기에 세포의 과도성장으로 생기며 안면부에서는 주로 연조직을 침범하여 부분적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과오종은 종양을 이루는 주된 조직 세포에 따라 신경종, 혈관종, 림프관종 등으로 나눌수 있다.

림프관종은 림프관 조직의 증식과 림프액의 유무에 관계없이 얇은 내혈관벽을 이루는 조직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발생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유전적 소인은 없고, 발생빈도에 대해서도 아직 문헌에 발표된 적은 없다. 조직학적 분류상 단순성 림프관종, 해면상 림프관종, 낭포성 림프관종 및 림프혈관종으로 나눌수 있으며 진단은

임상적, 조직학적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안면부의 종양은 안면골에는 좀처럼 침범하지 않으나 골부로 병변이 직접적으로 성장하거나, 골부 주위로 병변의 성장으로 인한 이차적인 압력에 의해서 병변 주위의 안면골에 변화 및 이상 발육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안면부위 종양은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일지라도 임상적으로 악성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본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실에서는 26세 남자 환자로 좌측 하악부에 림프관종과 이상 발육으로 인한 하악골의 변형을 동반한 1예와 6세된 여아로 좌측 경부에 수혈액 낭종과 거대설 및 이상발육으로 인한 하악골의 변형을 동반한 1예에서 성인 남자는 림프관종을 절제하고 하악골 절골술, 턱성형술 및 국소피판 등을 시행하였고 여아는 안면신경의 근위부를 보존하는 보존적 경부 림프절 청소술과 거대설부 절제술 및 환부의 설신경을 림프관종으로부터 박리하여 남아있는 설부로 이전시켜 보존함으로써 혀의 미각을 살릴 수 있었으며 이상발육한 하악골부를 제거하여 수술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 26 —

예방적 경부청소술의 임상적 평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두경부외과학교실

최종욱 · 이순영 · 이승호
김찬우 · 이선희

두경부암에서 경부임파절 전이의 가능성이 의심되나 임상적으로 임파절이를 확인할 수 없는 No neck에서 원발병소와 동시에 경부 임파절을 제거하는 예방적 경부청소술은 치료 목적과 더불어 두경부암의 중요한 예후 지시자(prognosticator)인 임파절의 상태 및 병기를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다는데 임상적 의의가 크나 국소 방어벽인 정상적 임파절이 동시에 제거된다는 점과 그 범위, 방법 및 측별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다.

이에 저자들이 1984년부터 1989년까지 두경부에 발생한 편평상피세포암 39예(구강암 15예, 하인두암 4예, 후두암 20예)에 대하여 실시한 예방적 경부청소술 47측에 대한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원발 병소의 병기는 T₁ 5예, T₂ 16예, T₃ 16예, T₄ 2예 이었다.

2) Supraomohyoid neck dissection(SOND) 13측, functional neck dissection(FND) 18측, lateral neck dissection(LND) 16측을 시행하였으며, 제거된 평균 임파절수는 SOND에서 18.2, FND 16.3, LND 11.3이었다.

3) 임상적으로 No neck에서 전이 임파절 양성율은 구강암 20%, 하인두암 50%, 후두암 10%이었으며, 평균 17.9%의 양성율을 보였고, 5.1%에서 임파절피막외 침범이 확인되었다.

4) 원발 병소의 병기별 전이 임파절 양성율은 T₁ 0%, T₂ 22.2%, T₃ 15.4%, T₄ 33.3%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증례수가 적어 통계학적 의의는 없지만 예방적 경부청소술을 시행함으로써 17.9%의 임파절전이절을 발견하여 두경부암의 치료 및 예후 판정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 27 —

두개안면절제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최은창 · 홍원표 · 이규성*

사골동에 발생한 악성종양은 진단시 병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위의 중요구조 특히 두개내 침범이 있는 경우는 수술의 급기가 되어 왔다. 또한 두개내 전이가 없다하더라도 해부학적 위치의 제한으로 종양을 외비절개술 등의 술식으로 en bloc으로 절제하기 어려워 치료성적이 좋지 않았다. Ketcham은 전두개저에 근접한 비강 및 부비동 종양을 제거함에 있어 전두골의 개두술로 전두개저를 절제한 후 종양을 제거하는 이른바 두개안면절제술(craniofacial resection)을 확